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 측정 도구 개발 및 평가

차효성¹, 고지현¹, 이경주¹, 최애리¹, 이건정^{2*}
¹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²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eparation Anxiety Scale for Mothers Using Child Care Facilities

Hyo Sung Cha¹, Jihyun Ko¹, Kyoung Ju Lee¹, Aelee Choi¹, Gunjung Lee^{2*}

¹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²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도구의 개발은 예비문항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거쳐 최종문항을 추출하였다. 예비문항은 문헌고찰과 인터뷰를 통해 구성하였고, 내용타당도는 5명의 전문가에게 검정을 받았다. 확정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편의추출 방법으로 204명의 보육시설이용 어머니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6개 요인으로 수렴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도구는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죄책감(5문항), 보육시설 안전(5문항), 보육교사 신뢰(5문항), 보육시설 이용 아이의 불안(4문항), 보육시설 이용 아이와의 상호작용 불안(4문항), 보육시설 관리(3문항)의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다. 결론적으로 본 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 측정에 적합한 측정도구로 볼 수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n instrument to measure the separation anxiety of mothers who use child care facilities. The scale was developed as follows: initial items generated,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s performed, and final items extracted. The initial items were develop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The content validity was verified by five experts. Using a final questionnair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04 mothers who used child care facilities with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The construct validity was evaluated by item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of confirmatory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es showed that the separation anxiety consisted of 6 factors: the mother's guilty feelings (5-items), safety of child care facilities (5-items), trust of teachers (5-items), child's anxiety (4-items), interaction anxiety with the child (4-items), and management of child care facilities (3-items). The separation anxiety scale for mothers using child care facilities consisted of 26 items. The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scale was examined. The Cronbach's α coefficient was 0.93. These results show that this scale is a valid and reliable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separation anxiety level of mothers who use child care facilities.

Keywords : Anxiety, Separation, Scal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인구는 2,520만

4,000명으로 총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1993년 43.3%에서 2013년 50.8%로 10년 동안 7.5% 증가하였다[1-2].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육아부담은 더 이상 가정

*Corresponding Author : Gunjung Lee(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Tel: +82-2-3277-3453 email: gunjeong@ewha.ac.kr

Received September 24, 2015

Revised October 26, 2015

Accepted January 5, 2016

Published January 31, 2016

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다[3].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빈곤 아동을 위한 탁아사업을 일반 가정 아동을 위한 보육사업으로 전환시켰고,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95~'97)을 세워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을 중심으로 보육정책을 전개하였으며, 2004년 1월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4], 2012년 3월부터 시설을 이용하는 0~2세 무상보육정책을 도입하는 등 육아지원 확대정책을 펼쳐나갔다[5]. 이에 보육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편화 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보육아동 수는 1993년 15만 3,270명에서 2014년 149만 6,671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6], 2014년 보육시설 이용 비율은 0-2세 영아 47.1%, 3-5세 유아 89.5% 수준이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2014) 영아 32.6%, 유아 80.6% 에 상응하는 수준이다[7].

보육 수요 증가는 질적 성장에 불균형을 가져와,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6], 어린이집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보도로 보육시설 이용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고 일부 어린이집 교직원은 영유아 체벌을 보육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8]. 이에 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는 정체되고[9], 오히려 시설에 대한 불신이 늘어가고 있다[10].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요구 분석[11-12], 보육시설 선택 기준[13-14],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15-17] 등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연구에서 간과된 문제는 어머니와 영유아 자녀가 격리되어 불안해 진다는 점이다[18].

격리불안은 아동과의 격리에 대해 어머니가 갖는 슬프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감정을 의미한다[19]. 어머니의 격리불안에 대한 견해는 정신 분석학적 견해, 애착 동물행동학 견해, 인종 및 사회문화 맥락의 견해 등 이론적 구성체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다[20]. 또한 어머니의 격리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나라와 시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18], 최근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 가정에서 대리 양육하는 것보다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21].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Hock, Gnezda,

McBride[19]에 의해 개발된 어머니 격리불안 면접도구 (Maternal Separation Anxiety Interview, MSAI)와 이를 바탕으로 조복희와 박성옥[22]이 한국형으로 수정 보완한 격리불안 측정도구가 있다. 조복희와 박성옥[22]의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는 ‘어머니의 격리불안(13문항)’, ‘아동의 격리 반응 및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10문항)’, ‘어머니 보호의 절대적인 믿음과 가치(6문항)’, ‘신체적 접촉 및 밀접함에 대한 열망(5문항)’, ‘직업과 관련된 격리관심 및 태도(5문항)’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위의 도구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측정하고 있어, 오늘날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육시설 위생 및 안전문제, 보육시설 위탁양육으로 인한 직접 양육 참여 및 기회 축소, 아동학대, 선생님과의 갈등, 감기나 유행성질병의 이환에 따른 건강문제 등과 관련된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본인이 느끼는 불쾌함 뿐 아니라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23]. 따라서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나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거의 대부분 1992년 개발된 조복희와 박성옥[22]의 한국형 격리불안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어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격리불안 척도를 개발하는데 의의를 둔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36개월 이하 영유아 어머니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DeVellis[24]의 도구개발 절차에 근거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정을 통해 예비문항을 선정하고,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구를 최적화하였으며, 도출된 구성요인들을 재검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수렴 및 판별타당도 검정, 준거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2.2.1 예비문항 구성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 측정을 위한 개념적 기틀 마련을 위해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여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어머니의 격리불안 속성을 파악하였다 [19, 22-23, 25-26]. 격리불안 태도, 죄책감, 격리반응,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요인을 확인하고 추출된 개념을 정리하였다. 어머니 격리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5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과 심층면담 내용을 근거로 도구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예비문항은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어머니의 격리불안 및 태도 요인 16개, 보육시설 위생 및 안전 요인 11개,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요인 15개, 아동의 격리반응 요인 8개, 어머니 보호의 절대적인 믿음과 가치 요인 6개, 어머니의 신념과 사회문화적 배경 요인 6개 등 6개 영역 총 6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형태는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답변이 중간에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짝수인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하였다.

2.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충청, 영·호남에 거주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6개월 이하 영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고, 1차 편의표집한 조사대상자를 통한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ing Sampling)을 병행하였다. 편의표집과 눈덩이 표집방법을 통해 265명의 조사대상자에게 웹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36개월 이하 영유아 어머니가 아닌 61명을 제외한 204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18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구성타당도 검정은 상관계수를 이용한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은 다양한 문항들 중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식은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6개의 요인구조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문항의 수렴 타당도와 판별타당도 검정은 다특성-다방법 행렬을, 준거타당도 검정은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설문을 받았다. 자료수집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익명성이 보장되고 참여자가 원하면 설문 작성 도중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예비문항 내용타당도 검정 및 예비도구 개발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수는 최소 3명에서 10명 이하가 바람직하므로[27], 본 연구에서는 여성학 전공 교수, 간호학 전공 박사 등 총 5인으로 구성하였고,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여 검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타당하다' 4점, '타당하다' 3점, '타당하지 않다' 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들에게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거나, 대표하는 속성이 애매하거나, 어머니 격리불안과 관련이 없거나, 극소수에게만 나타나는 드문 현상이거나, 첨가되어야 할 문항 등이 있는지 질문하고, 문체에 대한 의견도 요청하였다. 그 결과 62개 문항 중 내용타당도 지수가 .80 미만인 문항은 6개이었으며,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은 제거 또는 통합하였고, 문항이 긍정 또는 부정적 답변을 유도한다고 판단된 경우 용어를 변경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의미가 모호한 경우 명확한 문구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예비도구는 보육시설의

안전 9문항,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 7문항, 아이의 보육 시설 적응 8문항, 아이의 발달 4문항, 어머니의 양육가치관 9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12문항 등 총 6개의 요인과 49개 문항으로 확정되었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2.3세로 97명(47.5%)이 취업모로 조사되었다. 자녀수는 2명이 105명(51.5%)으로 가장 많았고, 1명이 88명(43.1%)이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6개월 이하 자녀는 첫째가 122명(59.8%), 둘째가 69명(33.8%)이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첫째 자녀는 평균 25.0개월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평균 16.3개월, 이용 기간은 9.3개월이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둘째 자녀는 평균 25.2개월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평균 16.4개월, 이용 기간은 9.0개월이었다. 보육시설에 맡기는 시간은 평균 6.7시간으로, 7시간 이상은 98명(48.0%)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수는 평균 6.7명으로, 5명 이하는 111명(55.2%)으로 나타났다. 등하원시 보육시설 차량을 48명(23.6%)이 이용하고, 155명(76.4%)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3.3 구성타당도

3.3.1 문항분석

문항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49개 문항들과 전체 문항 간 수정된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Tabachnick과 Fidell[28], Hair 등[29]이 권장하는대로 상관계수의 크기가 .30 이상인 문항들만 선택하였다. 제외된 문항은 ‘보육시설 이용 시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까봐 걱정된다’, ‘내 아이는 엄마의 도움 없이도 쉽게 친구를 사귄 것이다’, ‘아이가 엄마와 떨어질 때 때를 쓰더라도 시야에서 벗어나면 몇 분 이내 괜찮아질 것이다’, ‘가정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좋을 것이다’, ‘나와 다른 양육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내 아이는 보육시설에 있을 때보다 엄마와 함께 있을 때 훨씬 행복해 한다’, ‘내 아이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내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안다’, ‘나는 내 아이가 몹시 괴로워할 때 편

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잘 안다’, ‘나는 내 아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싫지만 아이의 사회생활을 위해 보육 시설에 보낸다’, ‘나는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것이 싫지만 아이의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보육시설에 보낸다’, ‘또래의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다니는데, 내 아이만 다니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 보육시설에 보낸다’,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하면 미안하다’ 등 총 14개 문항으로 35개 문항이 남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yrs) (n=201)	≤30	107(53.2)
	≥31	94(46.8)
Educational level	Less than high school	24(11.8)
	Associate degree	52(25.5)
	Bachelor's degree	94(46.1)
	Over master's degree	34(16.7)
Income (10,000won/month)	≤200	10(4.9)
	201 ~ 300	50(24.5)
	301 ~ 400	54(26.5)
Employment status	≥401	90(44.1)
	Yes	97(47.5)
	No	107(52.5)
Number of children	1	88(43.1)
	2	105(51.5)
	3	11(5.4)
Children of less than 36 months that use the child care center	First child	122(59.8)
	Second child	69(33.8)
	Third child	2(1.0)
	First & second	9(4.4)
Time spent at the child care center(hr)	Second & third	2(1.0)
	≤6	106(52.0)
Number of teachers (N=201)	≥7	98(48.0)
	≤5	111(55.2)
Type of child care center	≥6	90(44.8)
	National	15(7.4)
	Corporation	12(5.9)
	Workplace	7(3.4)
Usage of care center car (n=203)	Private	63(30.9)
	Home	107(52.5)
	Yes	48(23.6)
	No	155(76.4)

3.3.2 탐색적 요인분석

35개 문항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절성은 Kaiser-Meyer-Olkin (KMO)와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KMO=.91로 .50보다 높

아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이며,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4379.8$ ($p<.001$)로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추출 방법은 변수들을 요인들의 선형결합으로 가정하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다. Kaiser의 규칙에 따라 표본상관행렬의 고유값 1 이상으로 하였고, Hair 등[29]의 권고대로 전체 분산의 누적백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요인회전은 요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요인구조를 회전하는 방법으로[30] 직교회전 방식인 베리맥스 방법을 이용하였다. 각 요인들의 항목은 요인 적재량 .50 이상, 공통성 .40 이상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항목들을 이용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3.3.2.1 요인추출 및 요인회전

요인분석 결과 35개 문항에서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6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개의 문항 적재량은 .44~.87이었고, 공통성은 각 문항에서 .50 이상으로 적재량이 기준치 .50보다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제거된 문항은 ‘엄마가 아닌 보육교사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 ‘배변훈련 시기에 보육교사가 즉각 반응하지 못해서 아이가 실수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보육시설에서 아이가 음식을 잘 먹는지 걱정된다’, ‘내 아이는 엄마 외에 다른 사람이 돌보는 것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면 아이의 버릇이나 습관이 잘못 형성될까 걱정된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면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인격형성이나 정서발달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 ‘아이가 보육시설에 있을 때 행복해 보이지 않아 속상하다’ 등 7개 문항이었다. 또한 1요인과 5요인이 .51과 .56으로 비슷한 적재량을 보이는 ‘아이에게 충분한 애정표현과 사랑을 주지 못해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할까 걱정된다’ 문항을 제거하였다. 보육교사 신뢰요인의 내용과 맞지 않는 ‘보육시설 이용 시, 아이의 양육에 불만이나 불편함이 있더라도 참는다’ 문항도 제거하였다. 예비도구에서 9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26개 문항을 재분석한 결과, KMO=.90,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3117.42$ ($p<.001$)였으며 최종 6개 요인 26문항으로 도출되었다 Fig. 1, Tab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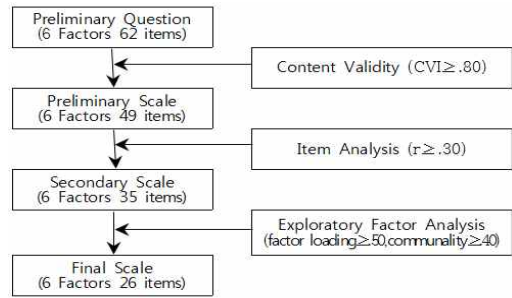


Fig. 1. The process of items development

3.3.2.2 요인명명

최종 26개 문항은 6개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68.60%를 설명하였다. 모든 항목의 요인 적재량은 .60~.87이었고, 공통성은 모든 문항이 .40이상으로 기준에 적합하였다.

제 1요인(설명력=12.92%)은 5개 항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한 죄책감이 내포되어 있어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죄책감으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설명력=12.79%)은 5개 항목으로 보육시설의 위생과 안전을 포함하고 있어 보육시설 안전으로 명명하였다. 제 3요인(설명력=12.77%)은 5개 항목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염려가 포함되어 있어 보육교사 신뢰로 명명하였다. 제 4요인(설명력=12.06%)은 4개 항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에 대한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어 보육시설 이용 아이의 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제 5요인(설명력=10.14%)은 4개 항목으로 아이와의 상호작용에서 느껴지는 불안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이와의 상호작용 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제 6요인(설명력=7.92%)은 3개 항목으로 보육시설 내에게 아이가 잘 관리되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육시설 관리로 명명하였다.

3.3.3 확인적 요인분석

26개 문항들이 6개 요인의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 구성요인에 따라 적합하게 도출되었는지 검정하기 위해 6개 요인구조를 가설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545.04$ ($df=284$, $p<.001$)로 적합도 기준($p>.05$)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χ^2 값이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 다른 지표들과 함께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31], 본 도구의 CFI=.91, TLI=.90, SRMR=.06, RMSEA=.07 (90% CI, .059-.076)으로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32-33] Table 3.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n=204)

Items	Factors					
	1	2	3	4	5	6
40 I'm sorry to send my child to the child care center when he/she needs to develop an attachment with me.	.87	.11	.10	.12	.15	.11
39 I regret sending my child to the child care center at a too early of an age.	.79	.10	.14	.17	.15	.13
41 It is upsetting that my child has to be constrained to rules at the child care center when he/she needs to act like a child	.76	.02	.17	.24	.04	.14
49 I feel like I am not fulfilling the responsibilities as a parent when I send my child to the child care center.	.62	.06	.10	.17	.35	.06
38 When my child cries and tries not to be separated from me at the child care center, I feel guilty or not comfortable.	.62	.26	.04	.18	.23	-.17
6 I'm worried about the hygiene management at the child care center such as house cleaning and toy cleansing.	.04	.76	.32	.28	.05	.14
8 I'm worried about the safety of the child care center, especially around the furniture, goods, and equipments.	.16	.73	.28	.06	.01	.22
7 I'm worried whether the child care center provides medications when my child is sick at the child care center.	.17	.73	.16	.18	.08	.27
4 I'm worried whether the child care center takes good care of ingredients and cook in a hygienic way.	.00	.69	.26	.14	-.01	.38
5 I'm worried that my child might catch a contagious disease at the child care center.	.17	.69	.09	.22	.23	-.05
15 It concerns me that there may be problems with the attitude and quality of the teachers at the child care center.	.07	.24	.83	.12	.13	.15
14 I am concerned about child abuse, such as discipline, corporal punishment, violence, verbal abuse, of the teachers at the child care center.	.06	.17	.82	.13	.10	.09
12 I am worried that the teachers may neglect my child at the child care center.	.21	.25	.65	.35	.07	.30
10 I am worried of whether the teachers can calm or lull my child, when he/she is sad or upset at the child care center.	.16	.25	.61	.35	.09	.26
13 Even though I have complains about the teachers, I send gifts asking them to take good care of my child.	.19	.17	.60	.13	.16	.09
19 I am worried that my child would look for me at the child care center.	.25	.15	.13	.86	.11	.08
18 I am worried that my child will cry at the child care center.	.21	.18	.16	.79	.19	.17
20 I am worried that my child would feel uncomfortable due to the unfamiliar environment of the child care center.	.27	.21	.25	.79	.03	.15
21 I am worried that my child may spend a painful time due to people of the child care center they dislike .	.18	.31	.36	.66	.03	.14
46 I'm afraid that my child cannot develop a good personality due to insufficient interactive relationships with me.	.20	.05	.09	.04	.81	.06
45 It's a pity that I can not do much for my child (ex. telling kids' stories, playing and reading books).	.21	.09	-.02	.08	.81	.10
44 I am worried that it may be my fault that my child falls behind others.	.04	-.03	.27	.12	.71	.16
48 When my child is wrong or has done wrong behavior, I'm sorry for my child and feel like it's my fault.	.33	.25	.14	.06	.60	-.19
1 I'm afraid that the child care center is not under good control due to the lack of teachers compared to children.	.11	.16	.23	.20	-.01	.70
2 I'm worried about how they care of children that are not yet potty-trained yet in child care center.	.16	.25	.31	.16	-.03	.66
3 I was upset because my child came home with dirty hands and face from the child care center.	-.01	.22	.07	.07	.27	.65
Initial eigenvalue	9.59	2.84	1.76	1.37	1.19	1.09
Explained variance (%)	12.92	12.79	12.77	12.06	10.14	7.92
Accumulative variance (%)	12.92	25.71	38.47	50.54	60.68	68.60
Kaiser-Meyer-Olkin (KMO)	.9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3117.42 (p<.001)					

전체 구조모형의 모든 경로계수들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였으며, 6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23-.72로 요인들이 서로 구분되었다[34] Fig. 2.

Table 3. Results of model fitness test

χ^2	CFI	TLI	SRMR	RMSEA
545.04				.07
df=284	.91	.90	.06	90%CI
p<.001				.059-.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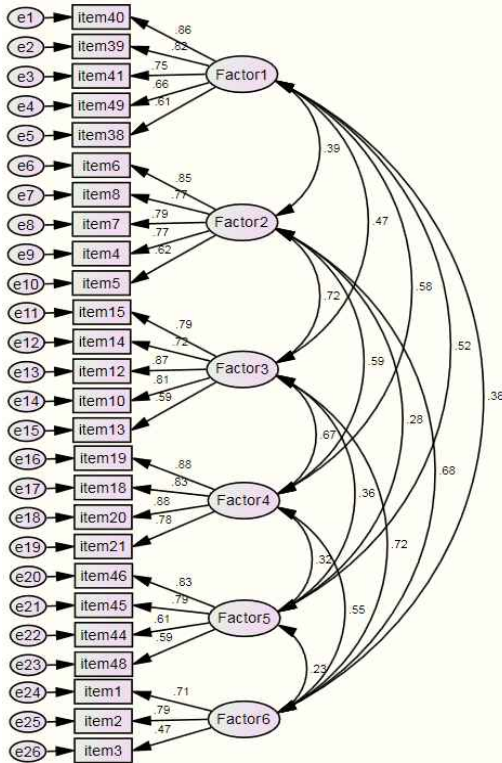


Fig.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4 문항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문항의 타당도 검정을 위해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알아보았고 이를 위해 다특성-다방법 행렬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이 속한 하부 요인과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40 이상일 때 수렴타당도가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고, 각 문항이 자신이 속한 하부요인과의 상관계수가 자신이 속하지 않는 하부요인과의 상관계수보다 유의하게 큰 차이를 나타내면 판별타당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35]. 다특성-다방법 행렬 결과 26개 문항과 이에 속한

요인과의 상관계수가 .69~.91의 값으로 모두 .40 이상으로 측정되어 문항 수렴 타당도의 척도 성공률은 100%로 나타났다. 또한 각 문항이 자신이 속하지 않는 다른 하위요인과의 상관계수는 .14~.62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어 모든 문항이 각 문항이 속한 요인과의 상관계수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판별타당도의 척도 성공률은 100%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Items	Factor					
	1	2	3	4	5	6
40	.30	.88	.41	.38	.38	.27
39	.33	.85	.45	.39	.39	.28
41	.28	.80	.47	.38	.30	.25
49	.25	.74	.40	.32	.47	.22
38	.29	.70	.38	.30	.40	.15
6	.87	.27	.52	.58	.22	.47
8	.82	.30	.40	.51	.21	.45
7	.84	.36	.47	.48	.26	.46
4	.82	.21	.43	.51	.14	.55
5	.70	.35	.41	.39	.33	.30
15	.53	.29	.43	.84	.29	.45
14	.44	.26	.42	.78	.25	.40
12	.59	.43	.62	.83	.30	.55
10	.55	.37	.58	.80	.30	.54
13	.40	.34	.40	.74	.28	.35
19	.41	.49	.91	.47	.27	.36
18	.46	.46	.88	.51	.35	.42
20	.50	.50	.90	.56	.24	.44
21	.57	.43	.85	.60	.24	.44
46	.20	.39	.21	.29	.84	.15
45	.21	.40	.23	.24	.82	.17
44	.21	.29	.27	.36	.77	.25
48	.27	.46	.27	.29	.72	.15
1	.42	.23	.39	.43	.14	.83
2	.50	.29	.42	.51	.16	.84
3	.39	.18	.27	.35	.25	.69

3.5 준거타당도

외적 준거로 기준에 개발된 유사척도와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준거타당도를 검정하였다. 준거타당도 검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조복희와 박성욱[22]이 개발한 어머니의 격리불안 측정도구로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다.

준거타당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 도구와 유사도구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3, p<.01$).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 하부영역과 유사도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 1요인($r=.50, p<.01$), 제 2요인($r=.33, p<.01$),

제 3요인($r=.37, p<.01$), 제 4요인($r=.44, p<.01$), 제 5요인($r=.43, p<.01$), 제 6요인($r=.25, p<.01$) 모두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6 신뢰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 불안-26은 전체 26개 문항의 Cronbach's α 값이 .93으로 새로운 도구는 .70 이상, 이미 개발되었던 도구는 .80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수립될 수 있다는 기준에 근거[36],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6개 하부영역 각각의 Cronbach's α 값은 .86, .87, .87, .91, .79, .69 등으로 나타나 본 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7 최종도구 확정

상기 과정을 통해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26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총 26개 문항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가보고식 측정도구로 개발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형태는 Likert 척도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되었고 점수분포는 최소 26점에서 최대 104점이 다.

4. 논의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어머니와 영유아 자녀의 격리가 보편화되고 영유아 자녀와 격리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머니의 격리 불안도 증가되고 있다[18].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격리불안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간호전략수립 및 중재는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예비문항의 어머니 보호의 절대적인 믿음과 가치 요인, 그리고 어머니의 신념과 사회문화적 배경 요인은 최종문항에서 삭제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위탁 양육이 필요한 어머니들에게 보육 시설이 일부 역할을 대신해 줌으로써 어머니 보

호의 전적인 중요성이나 가치는 자녀와의 격리불안 요소에서 배제되었다고 사료된다.

최종문항의 제1요인인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죄책감은 전체 도구의 12.92%를 설명하며 엄마와의 애착이 필요한 시기에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긴 것에 대한 미안함과 어린 나이에 보육시설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안쓰러움 등 어머니의 죄책감에 관한 내용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비도구에서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요인 12문항 중 3문항이 삭제되고 최종문항은 제 1요인인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죄책감 5문항과 제 5요인인 보육시설 이용 아이와의 상호작용 불안 4문항으로 분리되었다. 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보육시설 위탁 자체에 대한 죄책감과 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아이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감소되어 발생하는 불안으로 나누어 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종문항의 제1요인인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죄책감 5문항 중에서 ‘보육시설에서 아이와 떨어질 때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떼쓰거나 울면 나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불편해진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나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두 문항은 조복희, 박성옥[22]의 어머니의 격리불안 관련 문항과 유사하였다. 이는 보육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위탁 양육하는 것에 대해 시대가 변화여도 죄책감을 느끼고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인식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최종문항의 제2요인인 보육시설 안전은 전체 도구의 12.79%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보육시설 환경에 대한 위생, 안전, 건강에 관한 내용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비도구에서 인력, 시설, 위생, 건강을 포함한 보육시설의 안전 요인 9문항이 최종 문항에서 제 2요인인 보육시설 안전 5문항과 제 6요인인 보육시설 관리 3문항으로 분리되었다. 제 2요인을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은 자녀가 격리되어 있는 공간인 보육시설 전반과 관련하여 격리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에서 대리 양육하는 것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더 크다는 결과[21]를 지지한다. 그러나 보육시설 이용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조복희, 박성옥의 격리불안 측정도구[22]를 사용한 만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26 도구를 활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최종문항의 제3요인인 보육교사 신뢰는 전체 도구의

12.77%를 설명하며 총 5문항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 자질, 아동학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보육교사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예비도구에서 ‘엄마가 아닌 보육교사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 ‘배변 훈련 시기에 보육교사가 즉각 반응하지 못해서 아이가 실수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2문항은 삭제되었는데, 이는 보육교사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불안보다는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가능성에 대한 불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문항의 제4요인인 보육시설 이용 아이의 불안은 전체 도구의 12.06%를 설명하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어머니와 격리된 아이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비도구에서 아이의 보육시설 적응 요인 8문항 중 ‘보육시설에서 아이가 음식을 잘 먹는지 걱정된다’, ‘내 아이는 엄마의 도움 없이도 쉽게 친구를 사귄다’, ‘아이가 엄마와 떨어질 때 떼를 쓰더라도 시야에서 벗어나면 몇 분 이내 괜찮아질 것이다’, ‘내 아이는 엄마 외에 다른 사람이 돌보는 것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의 4문항은 삭제되었는데, 어머니와 격리됨에 따라 아이의 보육시설 적응에 관한 걱정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 시 아이가 울거나, 엄마를 찾거나, 불편감과 고통을 느낄지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아이가 느낄 불안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문항의 제5요인인 보육시설 이용 아이와의 상호작용 불안은 전체 도구의 10.14%를 설명하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보육시설 위탁 양육으로 인하여 아이와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못하여 우려되는 아이의 발달 및 성격형성에 관한 내용으로, 앞서 기술한 대로 예비도구에서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12문항 중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죄책감 요인과 함께 분리된 요인이다. 제5요인은 Mann, T hornberg[25]의 어머니 죄책감 척도 (Maternal Guilt Scale)를 바탕으로 장인숙[26]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양육 죄책감 관련 문항과도 비슷하였다. 이는 위탁 양육으로 인한 어머니 역할 및 아이와의 상호작용 부족함에 대한 양육 죄책감이 어머니의 격리불안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최종문항의 제6요인인 보육시설 관리는 전체 도구의 7.92%를 설명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 대비 보육교사 수가 부족함으로 우려되는 아이들의 보육관

리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도구에서 보육시설 안전 요인 중 분리된 것으로, 제2요인인 보육시설 안전과는 다르게 보육시설 내에서 아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종문항으로 확정된 6개 요인 26문항의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26 도구를 조복희, 박성욱[22]의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를 준거로 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전체 요인의 상관관계는 $r=.53$, $p<.01$ 으로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26의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하부영역과 준거도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2, 3, 6요인이 보육시설과 관련된 요인으로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와 $r=.25-.37$ 으로 상관관계가 낮고, 제1, 4, 5요인은 아이와의 격리로 인한 어머니의 불안 및 죄책감에 관한 문항으로 $r=.43-.50$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준거도구인 조복희, 박성욱[22]의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는 단지 아이와 격리됨으로 인해 어머니가 느끼는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본 도구와 죄책감 관련 일부 문항이 유사하였으나, 보육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보육시설 안전 및 관리, 보육교사 신뢰, 보육시설 이용 아이의 불안 및 아이와의 상호작용 불안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26과는 차별된 도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26 도구를 활용하면 조복희, 박성욱[22]의 어머니의 격리불안 도구와 달리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보육시설 안전과 시설 관리 및 인적 자원에 대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인식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3, 6개 하부영역의 Cronbach's α 값은 .69-.91의 범위로서 도구에 대한 내적 일관성이 존재하여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측정하는데 적용 가능한 신뢰도 있는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26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고, 특히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을 정의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앞서 정의한 요인구조를 검증함으로써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높였다. 그러므로 본 도구는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관련된 연구에서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격리불안-26은 총 26개 문항, 6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도구를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6개월 이하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격리불안을 평가하고, 실제적인 격리불안 요소를 밝혀냄으로써, 보육시설 관련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항의 구성 및 타당도, 신뢰도 검증 과정 대상자를 일부 지역에서 편의표집과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 전체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며, 구성요인에 대한 적용에 있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평가를 위해 다양한 지역적, 교육적, 환경적 배경을 가진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 대상의 추가적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Current Population Survey", Seoul: KOSTAT, 2014.
- [2] Statistics Korea, "Women's Lives through Statistics in 2014", Seoul: KOSTAT, 2014.
- [3] J. Y. Song, "A Study on Service Satisfaction of Parents Using Child Care Center". Electronic Resource, Vol.20, No.1, pp.113-137, 2010.
- [4] S. H. Back, "On Restructuring of the Debates on Child Care Financing in Reflection of Changing Policy Surrounding in Korea: with Burchardt's Mode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7, No.1, pp.5-29, 2005.
- [5] O. K. Hwang, "A Study on the Policy for Free Child Care for 0-2 Year old Children".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9, No.1, pp.81-100, 2013.
-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ildcare Statistics in 2014", Seoul: MW, 2014.
-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2nd Session of the child care policy committee" press release, September 19, 2014.
- [8] S. H. Lim, "A Study of Government's Regulations on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2014.
- [9] N. R. Shin, J. J. Ahn, "A Study for Validation of the Parental Satisfaction Scale for Child Care Cent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36, pp.231-259, 2011.
- [10] J. M. Kim, "From incidence of death to embezzlement of bounty ... distrust the child care center", jungbu daily news, July 7, 2014.
- [11] K. S. Kim, M. Y. Kim, E. H. Lee, "A Study on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Needs for Daycare Centers". Korean Education Inquiry, Vol.30, No3, pp.165-184, 2012.
- [12] J. S. Park, H. S. Ryu, Y. T. Jung, J. S. Kim, K. Nakajima,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rehensive child-care needs and demographic factors of mothers using the child day care cent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Vol.17, No.1, pp.199-221, 2013.
- [13] E. J. Baik, S. A. Han, M. J. Kang, "Study on Utilization and Preference Type of Childcare Support Service for Infa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6, No.4, pp.209-232, 2011.
- [14] S. J. Seo, J. Y. Ha, "Effects of Variables on Mothers' Choices of Types of Infant Care".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0, No.2, pp.319-335, 2014.
DOI: <http://dx.doi.org/10.14698/jkce.2014.10.2.319>
- [15] J. K. Kim, Y. S. Kang, "A Study on Parents' Satisfaction of Contracting-Out System in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Difference Between National · Public · Private Childcare Centers and Contracted-Out · In-House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 pp.282-290, 2015.
- [16] Y. K. Moon, J. N. Jung, Y. Lee, "User's Satisfaction and Needs for Infant Care from Private Infant Care Cente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54, pp.163-187, 2008.
- [17] Y. S. Lee, M. J. Kang, H. J. You,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Mothers on Child Care in Busan -Focusing the Utilization of Child Care Center and Fe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5, No.6, pp.407-432, 2011.
- [18] H. J. Hwang,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ccording to the Parental Perception of Child Rearing and Sex Ro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1997.
- [19] E. Hock, M. T. Gnezda, S. McBride, "The measurement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Detroit, MI, 1983.
- [20] S. O. Park, "A Study on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nd Its Related Variables". Institute of Basic Science Taejon University, Vol.3, No.1, pp.154-170, 1992.
- [21] Y. K. Park, J. Y. Yi, S. R. Lim, H. R. Jang, H. J. Kang, J. S. Kim, "Parenting Stress, Parenting Guilt Feelings, Separation Anxiety and Alternative Care in Hospital-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pp.302-311,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7.302>
- [22] B. H. Cho, S. O. Park, "Development of the 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13, No.1, pp.16-37, 1992.

- [23] M. H. Kim, S. Y. Han, "The Effects of Mother's Separation Anxiety and Parenting Guilt Feelings on Parenting Behavior among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19, No.4, pp.99-115, 2012.
- [24] R. F. DeVellis,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2.
- [25] M. B. Mann, K. R. Thornberg,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pp.451-464, 1987. DOI: <http://dx.doi.org/10.1080/0300443870270304>
- [26] I. S. Jang. "A study on the effect that guilt in foster care, separation anxiety and fostering stress influence the fostering attitud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1997.
- [27] M. R. Lynn,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Nursing Research, Vol.35, No.6, pp.382-386, 1986. DOI: <http://dx.doi.org/10.1097/00006199-198611000-00017>
- [28] B. G. Tabachnick, L. S. Fidell,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Boston, MA: Pearson/Allyn & Bacon, 2007.
- [29] J. F. Hair, R. E. Anderson, R. L. Tatham, W. C.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2009.
- [30] H. C. Kang, "A guide on the use of factor analysis in the assessment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3, No.5, pp.587-594, 2013.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3.43.5.587>
- [31] Byrne, Barbara 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y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8.
- [32] M. W. Brown,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pp.136-162. 1993.
- [33] L. T. Hu, P. M.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pp.1-55, 1999. DOI: <http://dx.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34]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11.
- [35] J. E. Ware, K. K. Snow, M. Kosinski, B. Gandek, "SF-36 health survey: manual and institute:. Boston, MA: The Health Institute, New England Medical Center, 1993.
- [36] J. C. Nunnally, Bernstein,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 Hill, 2006.

차 효 성(Hyo Sung Cha)

[정회원]



- 2010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교육학과 (보건학석사)
- 2014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역사회간호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건강증진, 지역사회 여성근로자 건강관리, 가족간호

고 지 현(Jihyun Ko)

[정회원]



- 201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노인간호학 석사)
- 2014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성인간호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노인간호, 돌봄, 심리적 안녕감, 간호교육

이 경 주(Kyoung Ju Lee)

[정회원]



- 201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행정학 박사 수료

<관심분야>

간호관리, 인적자원관리, 일-가정 양립

최 애 리(Aelee Choi)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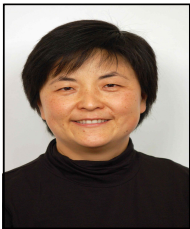
- 200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4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행정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간호관리, 의료질관리

이 건 정(Gunjeong Lee)

[정회원]



- 199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여성학 석사)
- 2005년 10월 :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 박사)
- 2006년 6월 ~ 2012년 2월 :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사회학과 연구조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건강통계, 국제보건, 간호인력 관리 및 정책